

매력적인 청록빛·심장 뛰는 배기음... 도로 위 미친 존재감



BMW 뉴 XM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측면 날렵한 쿠페 스타일 적용
제로백 4.3초·653마력 81.6kg.m
후륜조향 기술·흔들림 없는 시트
최신 M 전용 iDrive 등 탑재



BMW M 전용 초고성능 SAV BMW 뉴 XM.

“실제로 처음 보는데 디자인이 너무 예쁘네요.” “이 차가 그 차(지드래곤이 소개했던) 맞아요?”

BMW의 고성능 브랜드 M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모델인 ‘뉴 XM’은 세련된 외관과 고성능 차량 특유의 배기음이 조화를 이루며 도로 위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했다. 특히 품격 높은 차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하차감(차에서 내릴 때 느끼는 만족도)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시승을 진행하는 동안 뉴 XM에 대한 행인들의

질문은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뉴 XM은 외관 디자인에서 럭셔리 브랜드임을 직감할 수 있다. BMW 디자인 핵심인 키드니 그릴이 전면에서 자리하고 있으며 오묘한 청록빛을 내는 ‘케이프 요크 그린 메탈릭’은 다른 자동차에서 볼 수 없는 색을 보여준다. 그릴 테두리와 창문을 감싸는 ‘나이트 골드’는 XM만의 차별화된 디자인을 한층

어울린다. 측면은 쿠페 스타일을 적용해 날렵한 이미지를 연출했다. 뉴 XM의 시승은 서울 여의도를 출발해 충청남도 서산 해미읍성을 거쳐 돌아오는 250km 구간에서 진행했다. 주행 성능은 ‘2.7톤의 대형 SUV 맞아’라는 착각을 할 정도로 뛰어났다. 가속력은 2.7톤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경쾌했다. BMW가 공개한 제로

백 4.3초의 성능을 실감할 수 있었다. 뉴 XM은 489마력과 66.3kg.m의 토크를 내는 V8 4.4L M 트윈파워 터보 엔진과 197마력을 내는 전기 모터의 조합을 통해 합산출력 653마력과 81.6kg.m이란 압도적인 성능을 구현한다. 전기 모터가 구동되지 않아도 폭발적인 가속력을 제공했다. 가속 페달을 밟자 가볍게 치고 나갔다. 한적한 새벽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놀라운 가속력과 묵직한 배기음은 운전의 재미를 더했다. 도심에서는 순수 전기 모드만으로 62km 주행할 수 있어 경제성까지 갖추고 있다.

주행 안정성도 뛰어났다. 고속 구간에서 속도를 높이자 차량이 도로에 달라 붙어 달리는 기분이 들었다. 후륜조향(BMW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 기술을 적용해 코너링과 굽잇길에서는 좌우로 흔들리는 롤링 현상없이 민첩하게 빠져나갔다. 시트는 허리를 감싸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 탑승자들의 흔들림도 줄여줬다.

뉴 XM에는 최신 M 전용 iDrive와 BMW 라이브 콕핏 프로페셔널이 탑재됐다. BMW 라이브 콕핏 프로페셔널은 BMW OS 8 기반의 12.3인치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와 14.9인치 컨트롤 디스플레이가 통합된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구성됐다. 운전자 중심으로 구현된 넓은 디스플레이는 조작이 편리했고 시인성도 뛰어났다.

실내 공간은 여유로웠다. 특히 2열 공간의 거주성은 경쟁 차들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여유로운 공간과 특수 설계된 시트 쿠션은 2열 탑승자에게 BMW 플래그십 모델에 탑승한 듯한 높은 수준의 안락함을 제공했다. 적재공간도 넉넉하다. 경량 골프백과 보스틴 백 4개씩 넣어도 무방하다.

달리는 즐거움과 넓은 실내 공간, 스파와 같은 안락한 시트 등은 프리미엄 패밀리 SUV로 부족함이 없다. BMW 뉴 XM 가격은 2억219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정기선, 美법인 참전용사 가족에 감사 인사

(HD현대 사장)

美 앨라배마 현지법인 등 점검 방문
공장 직원들 격려 인사, 간담회 진행
6·25 참전용사 가족 韓 깜짝 초청



정기선 HD현대 사장이 최근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시에 위치한 HD현대일렉트릭 변압기 공장에서 참전용사 가족으로 둔 직원들을 만나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기선 HD현대 사장이 방미 기간 중 미국 앨라배마 현지법인 등을 방문해 직원 격려 행사를 가졌다. 정 사장은 6·25 전쟁 참전용사의 가족이 미국 법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이들을 만나 한국 초청을 깜짝 제안하기도 했다.

HD현대에는 정 사장이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시에 있는 HD현대일렉트릭 변압기공장,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에 있는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인프라코어, HD현대일렉트릭 법인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정 사장은 가족과 떨어져 먼 타지에서 지내는 주재원들을 격려하고, 북미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현지 직원들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2011년 설립된 HD현대일렉트릭 앨라배마 법인은 3만8678㎡(약 1만1700평) 규모의 생산공장에 38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HD현대의 건설기계부문 계열사인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도 애틀랜타시에 법인을 운영하

고 있다.

정 사장은 특히 HD현대일렉트릭 변압기 공장에 재직 중인 직원 6명이 6·25 전쟁 참전용사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들을 따로 만나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HD현대는 설명했다. 정 사장은 학군사관후보생(ROTC) 43기 출신으로 파주 제701특공연대에서 근무를 마치고 육군 중위 전역했다. 부친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도 ROTC 13기로 군 생활을 마쳤다.

정 사장은 이들 직원과 만난 자리에서 “방산기업의 CEO로서 참전용사의

용기와 희생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분들께서 목숨을 걸고 지킨 대한민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한국 초청을 깜짝 제안했다고 한다.

6·25전쟁 참전용사의 아들로, HD현대일렉트릭 앨라배마 법인에서 2012년부터 일하고 있는 직원 ‘제프리 워’씨는 “생각지 못한 선물을 받아 너무 기쁘다”며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발전한 한국의 모습에 아주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양성운 기자

두산, 협동로봇으로 북미시장 공략 박차

로크웰 오토메이션과 파트너십

두산이 미국 최대 산업자동화 솔루션 기업과 손잡고 북미에서 협동로봇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

1일 두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문홍성(두산 대표), 류정훈 두산로보틱스 대표, 에드 몰랜드 로크웰 오토메이션(Rockwell Automation, 이하 로크웰) 부사장, 이윤하 로크웰 오토메이션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로크웰은 북미 최대의 산업 자동화 및 정보화 전문기업으로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 제조업 생산시설 자동화에 사용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 100개 이상 국가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중 북미 시장 매출 비중이 60%에 이른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두산의 자회사 두산로보틱스는 로크웰에 독점적으로 협동로봇을 공급하고, 자동화 설비 및 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공정에 필요한 협동로봇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또 양사가 개발한 협동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두산의 국내외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대외 수주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 대표는 “산업 자동화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로크웰과의 협업을 통해 협동로봇 관련 솔루션을 다양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협동로봇 공급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삼성전자, 인텔13세대PC 신제품 3종 선보

갤럭시 북3·올인원·데스크탑

삼성전자가 데스크탑에도 인텔 13세대 프로세서를 확대했다.

삼성전자는 2023년형 ‘갤럭시 북3’, ‘삼성 올인원’, ‘삼성 데스크탑’ 등 PC 신제품 3종을 1일 출시했다.

갤럭시 북3는 전자 프로 모델의 프리미엄 슬림 메탈 디자인을 확대 적용했다. 15.4mm 얇은 두께에 1.57kg 무게로 휴대성도 높다. 가격은 109만원부터다.

그래픽은 외장형 인텔 아크 A350M으로, SSD 슬롯 2개를 제공해 용량 확장도 가능하다. 디스플레이는 39.6cm(16형)로, 그라파이트와 실버 2가지 색상으로 출시한다.

2년만에 새로 나온 일체형 PC 삼성 올인원은 좌우 너비와 두께, 스탠드 폭을 줄여 더 슬림해졌다. 후면에는 업그레이드 도어를 통해 메모리를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여러 포트도



삼성 올인원

후면과 디스플레이 측면에 배치해 사용성도 높였다. 디스플레이는 60.5cm(24형) 크기에 돌비 애트모스 3D 사운드 기술을 적용한 스피커도 더했다. 데스크탑도 새로 나왔다. 타워형과 슬림형 두가지 종류. 유선형 디자인으로 매끄러운 디자인을 구현했다. 타워형은 측면 팝업도어로 쉽게 본체를 열어 내부 청소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그래픽 카드는 외장형 엔비디아 제품을 탑재해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다. /김재용 기자 juk@

SKIET, 中 전기차 배터리 시장 공략 박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9위
中 신왕다에 분리막 공급 협력

이차전지 분리막 생산기업 SK아이이테크놀로지(이하 SKIET)가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 본격 공략에 나선다.

SKIET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9위 기업(2022년 SNE리서치 기준) 신왕다(Sunwoda)와 배터리 분리막 공급 등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

다고 1일 밝혔다.

SKIET가 전기차용 배터리 분리막을 중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에 대량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IET는 중국 창저우공장에서 생산한 분리막 제품을 신왕다에 공급할 예정이다. SKIET는 중국에서 IT, 전자제품용 분리막을 신왕다그룹에 공급하고 있었는데 그 영역을 전기차 배터리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신왕다의 전기차용 배터

리 주요 고객사는 지리자동차, 동평자동차, 상해자동차, 볼보, 폭스바겐 등이 있다.

양사는 이날 MOU를 기반으로 기술력과 품질, 가격 경쟁력을 갖춘 분리막 공급 확대와 관련해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상호 전략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중국 시장을 넘어 해외에서도 협력 관계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